

사람 잡는 '秋샘더위'

추석 연휴까지 '한여름 폭염'...광주·전남 온열질환자 '역대 최고' 5월 20일~9월 17일 사망 6명 등 466명...전년대비 62% 늘어나

올해 폭염이 길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온열질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추석연휴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역대 가장 무더운 9월 날씨를 기록하면서 농작물, 어류, 가축 등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18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수는 총 466명(광주 69명, 전남 397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지역민은 6명(광주 1명, 전남 5명)에 달한다.

'역대급 폭염'으로 꼽히며 가장 많은 광주·전남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2018년의 기록(온열질환자 440명, 사망자 6명)을 이미 뛰어넘었다. 질병청이 온열질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한 지난 2011년 이후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온열질환자 수는 2019년 241명(사망자 3명), 2020년 156명(0명), 2021년 142명(1명), 2022년 144명(0명), 2023년 286명(3명) 등이다.

또 역대급 폭염이었던 지난 2018년에는 9월에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0명이었지만, 올해는 광주 7명, 전남 32명(사망자 2명 포함)의 온열질환자가 9월 이후 발생했다.

문제는 추석 이후 비가 내린 뒤 폭염이 주춤하겠지만, 한낮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수를 집계하는 것을 감안하면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지난 13일 장흥군 관산읍에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작업에 나선 A(34)씨가 무더위에 쓰러져 숨졌다. 이날 장흥 관산의 최고체감온도는 34.6도에 달했다.

지난 10일에는 신안군 압해도에서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B(81)씨가 외출을 했다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가축 폐사 등 농·어민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8일까지 전남지역 164호 농가에서 닭·오리·돼지 등 총 26만 5250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해 45억 7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157개 어가에서는 넙치·우럭 등 717만5000마리

가 폐사했으며, 37개 농가의 인삼 135ha가 잎이 타 들어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추석 당일인 17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다. 광주가 35.7도를 기록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9월 날씨를 보였고 광양시도 35.4도, 순천 33.6도 등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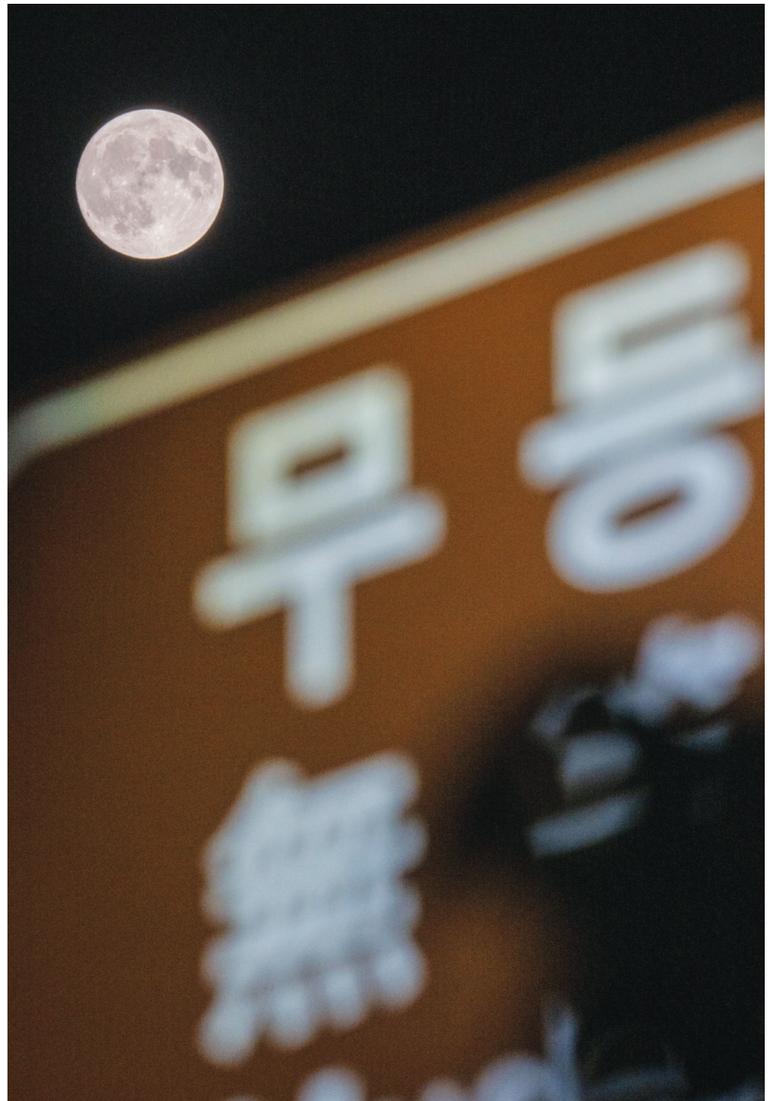
18일 역시 광양읍 36.6도, 곡성 36.2도, 무안 해례 36.1도, 곡성 석곡 36도, 광주 조선평대-풍암 35.9도, 구례-무안 35.8도, 담양 봉산 35.4도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군 이중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티베트고기압)이 9월 들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껍게 형성된 '열돔'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 인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에서 중국을 지나는 제13호 태풍 '비빙카'와 제14호 태풍 '폴라산'이 덮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점도 '9월 폭염'의 이유로 꼽힌다.

광주·전남 평균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도 31.1일을 기록해 1994년 26.3일, 2018년은 26일을 제치고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열대야일수(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 역시 36.3일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해로 남을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가위 슈퍼문 두동실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밤 9시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의 하늘 위로 등그런 보름달이 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이번 보름달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35만8211km로 평균 거리보다 가까워 더 밝고 큰 슈퍼문애 해당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 수시모집 의대 경쟁률 큰 폭 상승

전남대, 학생부교과 전형 7.86대 1...조선대 의예과 11.70 대 1

정부의 의대증원 영향으로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의학과와 학생부교과(지역인재 102명 모집)전형이 7.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78명, 4.09대 1)에 비해 큰폭으로 올랐다. 학생부종합(고교생활우수자 I, 13명)전형은 12.08대 1로 지난해(12명, 13.25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조선대 의학계열 경쟁률도 크게 상승했다. 의예과 11.70대 1, 치의예과 14.53대 1, 약학과 20.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서 의예과 15.50대 1, 치의예과 20.69대 1, 약학과 24.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에서 의예과 11.12대 1, 치의예과 11.81대 1, 약학과 16.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종합(면접전형)에서는 의예과 11.60대 1, 치의예과 16.33대 1, 약학과 27.33대 1

을 기록했다.

광주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광주대는 정원 1345명 모집에 총 6791명이 지원해 경쟁률 5.05대 1로 최근 5년 새 최고를 기록했다.

호남대는 1574명 모집에 7345명이 지원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신대는 1459명 모집에 525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53대 1을 찍었다. 한의예과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이 34.92대 1로 가장 높았고, 한의예과 학생부교과 지역학생전형은 17.75 대 1을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교육청 "전남 여건 외면 교사 정원 감축 철회를"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학년도 교사 정원감축 통보와 관련,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남의 교사 정원을 초등 145명(2.5%), 중등 179명(3.0%)을 각각 감축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감축 인원인 초등 29명, 중등 87명인 데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 담당 협의회 결과와 학교 현장 의견을 모아 지역 여건 반영한 전남 교과교사 정원 배정,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교원 수급 기준은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이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의 정원감축 기준은 2023년 대통령 이 신년사를 통해 내비친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는 교육개혁의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교사의 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조직의 정원을 줄이는 게 아닌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역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지역 발전의 기본은 탄탄한 공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 현실을 반영해 교원 정원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최승복 부교육감 부임

광주시교육청은 최승복(55·사진) 신임 부교육감이 19일 부임한다.

신임 최승복 부교육감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 경영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공공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팀장, 목포대 사무국장,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며 "교육 구성원과 더불어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중심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